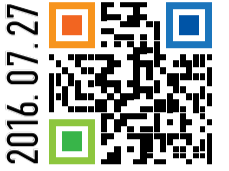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 ⑥ blog.naver.com/cityansan
- ① facebook.com/ansancity3
- ① twitter.com/ansancityhall
- ③ story.kakao.com/ch/ansancity

발행일 2016년 7월 27일
 발행인 안산시장 제종길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031.481.2042 / Fax 031.481.3224 / E-mail bravo@iansan.net
 e-브라보안산 https://bravoansan.net



소비자를 생각하고 농업인을 배려하는 착한 먹거리 로컬푸드직매장



본오동 각골사거리 고가차도 옆에 자리한 반월농협 로컬푸드직매장(상록구 해안로 1190-1)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인기를 끌며 화제다. ‘싸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한다’는 원칙 아래 작년 5월에 문을 연 이후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월로컬푸드직매장은 평일은 1,500만 원, 주말에는 2,000 ~ 2,5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개장 첫해 총 매출 28억 원, 올해 상반기에만 34억 원이라는 놀라운 성과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신선영 명예기자 _ woghkah@hanmail.net / 사진 김진형 명예기자 _ econojin@naver.com



자연이 준 신선한 선물을 만나다

대추방울토마토, 흑토마토, 오이, 양파, 고추, 감자, 애호박 등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제각기 생산자의 이름표를 달고 놓여 있다.

정상철 씨(56세, 농업인)는 “군대 제대하고부터 농사일을 해왔는데 점점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평일에는 하루 두 번, 오늘은 세 번째 들릅니다. 신선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발품을 파는 거죠.”라며 싱싱한 열갈이배추 스무 단을 판매대에 올려 놓는다. 숨이 살아 있는 열갈이배추와 열무 다섯 단을 카트에 담은 주부의 얼굴이 환하다.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가 밥상에 오를 것을 생각하며 소비자와 생산자의 즐거운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업인과 소비자의 행복나눔터

지역에서 자란 농산물을 1일 유통해 언제나 신선하고, 이동거리와 유통단계를 줄여 에너지 소비와 탄소배출량을 낮춤으로써 지구환경을 지키며, 농업인이 직접 정한 정직한 가격으로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만날 수 있는 로컬푸드직매장은 농업인과 소비자가 마음과 가치를 함께 나누는 행복나눔터가 되고 있다.

‘농민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저희들이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농업인이 잘 되어야 우리 국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농산물이 신선하고 맛있어요. 특히 땅두름 향이 너무 좋네요.’ 매장 입구에는 감사와 격려의 쪽지가 벽면을 채운다. 이런 마음들이 오가며 매장은 활기가 넘친다.

농촌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하는 새로운 유통문화

정금미 팀장은 “현재 직매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가는 277가구입니다. 그중 70 ~ 80%에 해당하는 고령농업인과 소농들은 그동안 판로가 없어 자급자족의 형태에 그치던 것이 직매장이 생기면서 농가 소득으로 이어져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대농 위주의 유통시스템에 참여할 수 없는 소농들도 함께 소득이 증대하게 된 것이죠. 또한 생산이 곧바로 판매로 이어지면서 연중 생산도 가능해졌다.”고 했다.

스마트폰에 연동되는 CCTV를 통해 판매대를 확인하고 다시 물량을 채우러 들른 반월

농협조합원 이상용 씨(45세, 농업인)는 “전에는 상추, 오이, 토마토 등 한 가지 작물만 집중적으로 재배해왔는데, 같은 종류의 작물을 동일한 밭에 연속적으로 재배하게 되면 병충해 밀도가 높아지며 수확률이 떨어지는 연작장애(連作障害)가 발생합니다. 직거래 장터 시스템에서는 전문 작물 이외에 단호박, 참외 등 다른 작물을 시도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품목을 재배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는 대체품목으로 애플수박을 심었는데 호응이 좋네요. 1인 가구 등 단출한 가족들이 먹기에 좋은 애플수박은 당도가 높고 껍질이 얇아 사과처럼 깎아먹을 수 있고 쓰레기 발생량이 적으며, 냉장고에 보관하기도 좋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생산자 입장에서 곱치는 품목이 줄면서 경쟁과 재고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며 웃는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약속으로 운영되는 반월로컬푸드직매장

반월농협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업인들은 수확 후 직접 포장을 하고 가격을 결정하며 진열을 한다. 각 농산물 판매대에는 생산자의 이름과 사진·주소·전화번호 등이 적힌 안내판을 붙여놓아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다. 업체류는 1일, 과채류 2일, 구근류 3일의 출하기한을 지키며 재고도 생산자가 직접 수거하는 등 당일 생산 및 출하를 원칙으로 해 농산물의 신선도를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농협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만 직매장에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다. 생산단계에서부터 토양관리, 농약방제 등 농산물 안전성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며, 잔류농약 등 농업기술센터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검사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유통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다.

반월로컬푸드직매장에는 농산물 이외에도 동주염전 소금, 그랑꼬도 와인, 상록수 된장, 안산막걸리 등 지역특산품과 안산시 장애인단체·시니어클럽·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들기름과 참기름, 비누 등도 함께 판매하며, 우유, 계란, 육류 매장도 운영한다.

이용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연중 무휴(명절 제외)
문의 반월 로컬푸드직매장(031-501-5237)



안산은 둘러 볼 곳이 참 많다. 서해바다를 호수로 만든 시화방조제의 조력발전소, 보물섬 대부도가 품고 있는 구봉도 낙조, 대부해솔길, 동주염전, 탄도바닷길, 풍도·노랑부리백로·수달 등 야생동물들의 천국이 된 갈대습지공원 등 이 모든 곳을 코스별로 돌아보는 ‘시티투어’를 이용하면 방향을 맞아 찾아 온 친척들에게 즐거운 기억으로 남을 여행길이 되지 않을까.

안산시티투어는 매주 화요일에서 토요일 중앙역 남쪽광장에서 10시에 출발한다. 특히 서울 광화문에서 출발하는 코스는 해양요트체험과 물놀이를 겸한 갯벌생태체험이 여름철 특별코스로 7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진행되는데 코스별로 1만 원의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청소년들은 크루저와 디깰요트, 래프팅 보트, 카약 등 해양스포츠를, 일반인들은 탄도에서 제부도까지 크루저요트를 즐기며 드넓은 바다 품에 안기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썰물 때 드러나는 갯벌에서 다양한 바다 생물들을 만나보는 신비의 체험도 마련되어 있다. 사전 예약은 온누리여행사(1899-7687)로 하면 된다.

7월 22일에는 사2동 에너지절약마을추진협의회 회원 30여 명이 모임을 겸해서 시티투어에 나섰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광에 입담 좋은 스토리 텔러의 해설이 곁들여지면서 회원들은 안산의 구석구석을 새롭게 느껴볼 수 있었다. 1993년 시화방조제가 완공되면서 섬 아닌 섬이 된 대부도, 쪽 뽕은 11.7km의 시화방조제를 달려 맨 처음 도착한 곳은 조력발전소 T-라이트 전망대다. 75m 높이 전망대에 올라 썰물 때에 맞춰 시화호 물이 바다로 내보내지는 모습을 보고, 성인 3명의 키 높이만 한 직경을 가진 수차 10대가 가동 중인 발전소 내부에 들어가 50만 인구가 1년간 사용할 전력을 생산해내는 현장도 둘러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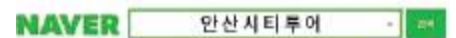
국물 맛이 시원한 바지락칼국수로 점심을 먹고 탄도 어촌박물관으로 향해 방조제가 세워지기 전 온전한 어촌마을이었던 대부도 주민들의 옛 모습도 살려봤다.

에너지절약마을추진협의회 이현경 씨는 “안산은 역사가 깊고 문화나 특산물 등 자부심을 가질 만 한 도시라는 것을 오늘 시티투어를 통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아이들 데리고 가족과 함께 올 계획”이라고 했다.

안산시가 적지 않은 예산을 보조하며 새롭게 시동을 건 ‘시티투어’가 안산 관광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본다.

시티투어버스로 안산·대부도 나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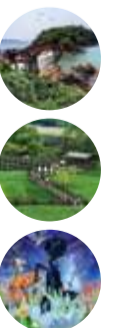
이렇게 운영됩니다!



- 운영기간 연중
- 출발장소 및 운행시간
안산 출발 : 중앙역 / 매주 화 ~ 토요일(10:00 ~ 17:00)
서울 출발 : 광화문사거리 관광버스 탑승장 / 매주 수요일, 토요일(09:30 ~ 19:00)
- 운행기준
중앙역은 예약인원 15명 이상, 서울 광화문은 20명 이상 시 운행
45인승 시티투어버스, 기관 및 단체 15명 이상 예약 시 고객 맞춤형 코스 운행
- 이용금액
안산 중앙역 : 성인 6,000원, 청소년·군인·경로자 4,000원(입장료, 체험료, 식사비 별도)
서울 광화문 : 24,900원(2층 버스, 점심 포함)
- 예약문의
안산시티투어 사업부(1899-7687)
안산시티투어 홈페이지(www.ansancitytour.com)

내 취향대로 타요~ 타!

- 대부도(대부해솔길) 코스
중앙역 → 시화호조력발전소(달전망대) → 대부해솔길 1코스 [토요일은 6코스(탄도항)] → 중식 → 안산어촌민속박물관(누에섬 등대전망대) → 중앙역
- 시내권(문화예술) 코스
중앙역 → 최용신기념관 → 성호기념관(안산식물원) → 중식 → 단원미술관 → 안산갈대습지공원 → 중앙역
- 기관·단체 맞춤형 코스
하루 일정으로 안산 시내권, 대부도 관광지 및 염전·승마·종이공예·유리공예·도자기·트레킹체험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자와 구인기업이 만나는 희망징검다리

2016 안산·시흥 대규모 취업박람회 열려

지난 7월 19일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제1, 제2전시실에서 80여 개 구인업체와 1,200여 명의 구직자가 참가한 대규모 취업박람회가 열렸다. 취약계층, 청년, 여성, 중장년, 시니어, 외국인까지 전 계층이 참가한 이번 박람회는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안산, 시흥 우량강소기업과 안산·시흥일자리센터가 추천하는 지역 대표 히든 기업이 구인에 나섰다.

취업준비에 도움을 주는 컨설팅관도 마련돼 구직자에게 맞춤형 추천하고 구직자 역량중심의 취업이 되도록 이끌었다. 모발·피부·노동자 색을 분석해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상을 찾아주는 이미지 컨설팅과 NCS 기반의 직무·역량분석, 지원서 작성부스는 기대와 긴장 속에 면접에 임하는 구직자들에게 힘이 됐다. 최근 창업 열기를 반영하듯 예비창업가들을 위한 컨설팅부스도 함께 열려 창업이 취업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지원서에 빠질 수 없는 사진을 찍어주는 사진관도 마련돼, 단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강화해서 이력서를 빛나게 해줄 맞춤형 사진을 제공했다.

대학 졸업 후 본격적인 구직활동에 나선 장양선(28세, 중앙동) 씨는 이날 박람회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에 나서게 됐다. “고용노동부 소개로 오늘 박람회에 오게 됐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볼 수 있어서 기대 이상입니다. 열심히 구직 활동하는 사람들 모습에서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자극을 받았습니다.”

경일관광고등학교 유통경영학과 3학년 학생들은 여름 방학을 앞두고 취업담당 교사와 함께 박람회장을 찾았다. 김진석 학생은 “졸업 전에 취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취업하고 대학은 열심히 일을 배운 몇 년 후에

진학할 생각”이라며 “회계 쪽 일을 하고 싶은데요. 사무직 취업이 어려우면 생산직이라도 취업할 생각”이라고 했다.

주관이 뚜렷한 김진석 학생의 모습에 ‘Y모자’ B사장의 일화가 떠올랐다. 6·25때 10살 나이로 졸지에 부모와 헤어져 이북에서 내려온 B사장은 군부대 심부름 소년에서 15세 모자공장 청소부가 되었다. 열심히 청소하는 모습을 눈여겨 본 사장이 다림질을 시켰고 이어서 미싱일과 모자재단까지 배울 수 있었다. 그때 배운 기술은 사업을 일으키는 토대가 되어 굴지의 그룹을 이룬 지금에 이르게 해줬다. “어떤 일이든 우선 취업을 해서 열심히 하면 주변에서 알아보고 채간다”는 B사장의 말은 시대가 달라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이날 박람회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매일 19일마다 취업박람회가 열리지만 여전히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자리 부족의 반증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구해서 희망을 가졌으면 한다. 많은 분들이 기회를 가지고 좋은 일자리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 안산시 일자리센터(031-481-2275)
백미란 명예기자_ whity0218@naver.com

모두 함께 달려요!

2016 안산희망마라톤대회 9월 25일 와~스타디움에서 출발



민들의 건강증진과 이웃 간의 소통이 더욱 확대되길 바라는 희망을 담았다.

2011년 시작된 희망마라톤대회는 올해 6회째로 5km와 10km, 21.0975km의 하프코스, 42.195km를 달리는 풀코스까지 4종목이 열린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8월 19일까지 희망마라톤 사무국(<http://www.ansanrun.com>)으로 인터넷 접수를 하면 된다.

전국 마라톤 동호인들이 기다려온 ‘2016 안산희망마라톤대회’가 9월 25일 와~스타디움에서 열린다. 올해는 안산이 시로 승격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2016안산희망마라톤대회는 30년 동안 안산이 이룩해온 발전만큼 중요한 시

단체참가 팀은 참가양식을 내려 받아 emara@hanmail.net으로 이메일 접수할 수 있다. 와~스타디움에서 출발해 안산 도심 일대를 달리는 이번 마라톤대회는 전국에서 6천 명이 넘는 동호인들이 참가할 것으로 주최 측은 내다보고 있다.

풀코스와 하프코스, 10km코스 참가자에게는 에어로쿨 원단을 사용해 만든 시원한 기능성 티셔츠가 기념품으로 준비됐다. 5km 참가자에게는 해가 진 오후 안전한 달리기 위한 야광기능 티셔츠를 증정한다. 30인 이상 단체 참가 팀에게는 1위부터 5위까지 최다인원 참가팀(5km 제외)을 가려 상금 20만 원씩을 지급한다.

참가비는 풀코스와 하프코스 3만 원, 10km코스는 2만 원, 5km코스는 1만 원이다. 풀코스는 빨간색 바탕의 배번호가 주어진다. 하프코스는 녹색, 10km는 청색, 5km는 노란 색이다. 대회는 종목별로 달리는 시간의 제한이 있는데 풀코스 5시간, 하프코스 2시간 30분, 10km 1시간

30분, 5km는 1시간이다.

이번 대회는 측정 칩을 이용한 넷 타임 방식으로 순위를 산정해 종목별 1위부터 10위까지(5km는 5위까지) 상장과 상품으로 농협상품권 50만원부터 10만원 상품권이 주어진다. 11위부터 20위까지는 상장과 안산의 특산품을 부상으로 받게 된다. 안산희망마라톤대회에서는 직접 코스를 달리는 참가자뿐만 아니라 응원 차 함께할 가족 이웃 친구 동료들을 위해 다양한 부스가 마련되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먹거리 부스 또한 문을 연다.

2016안산희망마라톤대회는 가족, 친구, 이웃, 직장동료와 함께 참여해 마라톤 완주의 뿌듯함과 즐거운 추억을 누리는 자리가 될 것이다.

문의 : 2016안산희망마라톤대회
(1566-1936 / <http://www.ansanrun.com>)
백미란 명예기자_ whity0218@naver.com

안산품
안긴 대부도

대부도에 꽃 핀 날

햇빛이 뜨거워지는 초여름.

대부도의 중심생활권인 상동(대부북동)은 평소와 달리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한다.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가보니 한우마을 옆 공터에는 형형색색의 꽃들과 풀들이 쌓여있고, 바닥에는 퇴비가 쏟아져있다. 양손에 목장갑을 끼고 야생화를 화단에 하나씩 옮겨 담는데 열중하고 있던 분들에게 “웬 야생화예요?” 라고 묻자 “보고만 있지 말고 얼른 같이 심어. 자, 예쁜 애들로 옮겨 심어봐.” 하며 손에 끼고 있던 장갑을 건네주신다. “이게 더 예쁘네. 이걸로 심어.” 라며 더 활짝 핀 꽃들을 맨손으로 건네주신다. 이들은 왜 다 같이 모여서 꽃을 심고,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을까?

행정 및 금융기관, 소규모 상가들이 밀집된 상동(대부북동)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대부도의 중심지이다. 이곳에는 반평생 삶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들의 모임인 대부상가번영회가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유지하며, 아직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이곳을 지키고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모임을 만들게 된다.

모임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었던 내용은 ‘왜 외지인들에게 이 거리는 머무는 장소가 아닌 거쳐 가는 곳일까’와 ‘거리에 위험천만하게 걸어 다니는 아이들과 편의성에 기댄 골목 주차’였다. 이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던 중 화단조성에 뜻을 같이 하였다. 본래 대부도의 중심 거리인 상동을 생동감이 넘치는 거리

로 만들고 아름답게 가꾸려는 대부상가번영회와 주민들의 취지와 노력에 대부해양관광본부도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첫 단계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화분을 가져오면 옮겨 심을 수 있는 야생화를 배포하였다. 두 번째로 거리에 놓일 화단은 유지와 관리를 책임질 상가들의 서명을 받아 대부해양관광본부와 상인들이 함께 꽃들을 옮겨 심으며 길가를 화사하게 밝혀줄 소소한 ‘꽃의 거리’를 만들게 된 것이다.

대부도의 옛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상동에 활기와 생기를 불어넣고자 함께 머리를 맞대어 마을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대부상가번영회. 주민들의 고민과 의지에 함께 공감하며 행정적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부해양관광본부. 주민과 행정이 서로의 마음과 의지에 공감하며 한 걸음씩 내딛고 있는 야생화 나눔과 화단 조성 사업. 잔잔한 상동에 꽃을 피우는 작은 씨앗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소중한 일 일테다.

글 이슬기



대부도에 지붕없는 박물관 ‘에코뮤지엄’ 조성



경기만에 에코뮤지엄이 조성된다.

에코뮤지엄이란 기존의 ‘박물관’ 개념에서 벗어나 자연, 인간, 사회를 유기적인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접근하여 자연 및 문화유산을 현지의 환경과 더불어 보존, 육성, 전시하는 현지 보존형 야외 박물관을 말한다.

도는 대부도 창작센터 내 선감학원 역사박물관 리모델링, 에코 아트체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경기만 전체를 아우르며, 시는 (구)대부면사무소를 거점으로 거리정비, 해솔길 정비, 생태마을조성 등을 통해 에코뮤지엄 조성에 협력한다.

적은비용으로 개발과 환경보존을 동시에 하는 에코뮤지엄 사업은 역사·문화·생태를 관광자원화 시켜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 문의 문화예술과(031-481-2798) ●



백남준, 버마 체스트

장승업에서 백남준까지, 경기도 39개 미술관 수작을 한자리에

경기도미술관 개관 10주년 특별전 ‘백화만발 만화방창’展 열려

경기도내 39개 미술관이 소장한 다채로운 수작들을 한자리에 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 <백화만발 만화방창>展이 오는 9월 18일 까지 경기도미술관에서 열린다. 개관 10주년을 맞이해 경기도 미술관이 준비한 이번 전시는 백화가 만발하듯 무성하게 피어있는 도내 미술관을 소개하고, 각 미술관이 소장한 수작 100여 점과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근대의 대가부터 백남준의 미디어아트까지 한국 현대미술사를 장식한 주요 작가의 작품들, 장승업을 비롯한 조선 마지막 화원 화가들의 작품, 한국을 대표하는 조각가의 섬세한 작품을 모두 한 곳에서 만나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작품이 말하는 이야기뿐 아니라 작가와 관련된 이야기, 작품을 소장한 미술관의 이야기 등이 입체적으로 펼쳐져 더 적극적으로 작품을 감상하게 된다.

구본웅 작가의 ‘푸른머리의 여인’은 1970년대 한국현대미술전에 소개된 이후 처음으로 호암미술관 바깥으로 나오게 됐다. 이번 전시는 도판으로만 늘 봐왔던 유명한 작품을 실제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구본웅 작가는 2살쯤 가정부의 부주의로 마루에서 떨어져 척추가 손상된 후 불구로 평생을 살아왔던 화가로, 야수파 화풍에 표현주의를 뒤섞은 복합적인 화법을 구사한 한국 근대 모더니즘의 선구자다. 이 작품을 설명하던 황록주 경기도미술관 학예연구사는 그림과 관련된 작은 이야기들을 풀어냈다. “이 그림 속 여인은 시인 이상 작품에 나오는 금홍이라고 추정되기도 한다. 절친한 친구사이였던 이상과 구본웅은 금홍과도 친하게 지냈다. 이상 작품에 나오는 금홍의 날카로운 콧날과 도톰한 입술 묘사가 이 여인을 그대로 설명해 놓은 것 같다는 것이다. 정확한 자료에 근거했다고 할 순 없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작품을 감상하는 가장 즐거운 방법이 아닌가 싶다.”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백남준의 비디오 설치 작품 ‘버마 체스트’도 눈에 띈다. 버마 체스트는 불교 중에서도 밀교가 성행했던 버마 미얀마 지역에서 사용됐었던 개인용 제단을 말하는데, 가구 이름이 그대로 작품 제목이 됐다. 버마 체스트 상단부에는 8개의 소형 모니터가 있고, 양쪽 측면에는 여성의 누드와 음악가 샬롯 무어만의 퍼포먼스 영상을 볼 수 있다. 백남준 선생의 오랜 테마였던 인간의 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담은 작품이다. 그리고 이 작품 오른쪽 뒤쪽에는 백선생의 부인이자 오랜 작업 동반자였던 구보타 시케코 여사의 작품, ‘계단을 내려오는 나무’도 볼 수 있어 더 흥미롭게 작품을 감상하게 된다.

마가미술관 관장이기도 한 송번수 작가의 ‘분노의 자아’에는 커다란 가시와 실제보다 더 큰 가시 그림자가 그려져 있다. 언뜻 보면 그림처럼 보이는 이 작품은 타피스트리 기법을 이용해 씨줄과 날줄을 한 올 한 올 엮으면서 만든 작품이다. 오랜 기간 동안 인내심을 갖고 만들어 졌을 가시 이미지를 보고 있노라면, 우리 안에서 불쑥 불쑥 올라오는 욕망과 분노들이 어찌하면 평생을 걸쳐 짊어지고 가야할 인생의 짐이나 업보처럼 느껴져 한참을 서성이게 된다.

올여름 경기도미술관에서 마음 속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줄 작품 하나와 인연을 맺어보는 건 어떨까.

Information

전시기간 2016년 9월 18일(일)까지
 경기도미술관 홈페이지 <http://gmoma.ggcf.kr>

☎ 문의 : 경기도미술관(031-481-7000) / 송보림 명예기자 _ treehelp@naver.com



푸른 머리의 여인



송번수, 분노의 자아를 관람하는 모습

20여 년 이상 활동한 안산미술 1세대들이 모였다

안산작가회 'Here & Now' 전시 열어

단원미술관 제2관에서는 7월 31일까지 안산작가회의 'Here & Now' 전시가 열린다.

안산에서 초창기부터 활동한 박신혜, 안예환, 이규승, 장경영, 하진용, 허재 6명의 화가가 뭉쳐 안산작가회를 만들었다.

수 년 전부터 좋은 전시를 만들어 보자는 마음을 모아오다 지난해 전시를 계획하게 되었다. 작가로서 작가의 식을 가지고 의식 있는 작품 세계를 넓혀가자는 의미를 담고 탄생하게 되었다.

안산미술의 1세대 작가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안산작가회 회원들은 전업 작가로서 안산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안산 미술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20여 년 이상 작품 활동을 한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안산 작가회 회장은 "오랜 세월 작품 활동을 했어도 작품이 노쇠해 가는 것이 아니라 젊은 의식으로 작업하는 마음을 담고 시작한다. 작품활동을 열심히 하며 그림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이 오래도록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먼 길 여행을 떠나면서 늘 가슴에 품었던 것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만나고 무엇을 바라 먼 길을 떠났던가. 그 여행길에서 크고 깊은 울림은 산으로부터 왔다. 흰눈을 머리에 이고 풀 한포기도 없이 우뚝 솟아 세월의 무게를 견디는 높은 산들. 지우고 또 떨어내어 남아있던 그 기억, 텅텅 비워낸 나의 내면에 남아있는 것, 그런 먼 기억들을 그리고 싶었다. 그 길에 만났던 풍경들을 허전하고 단순하게 그리고 싶었다. 늘 붓끝은 무더 그 곳에 도달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붓질을 쉴 수가 없다.(이규승 작가 노트 中)

☎ 문의 : 단원미술관(031-481-0505)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하진용, 사유의 공간



안예환, smoewhere

'Happy Tree (행복나무)'와 CD의 만남

저장의 의미를 갖는 CD작가 이동수 개인전 열려

이동수 개인전이 단원미술관 제2관에서 오는 8월 2일부터 8월 7일까지 열린다.

이동수 화가는 현대사회의 시대적 대표 산물인 컴퓨터의 일부기능을 담당하는 CD(Compact Disk)를 활용한 평면작업을 하고 있다. CD의 특성은 얇은 매체 안에 무수히 저장할 수 있는 지식들과 프로그램, 그리고 영상과 음향 등 여러 가지의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공간성을 상징할 수 있는 CD는 작업의 주재료이자 모토이며 공간성을 대신하고 있다.

저장의 의미를 갖는 현대적 매체인 CD를 통해 많은 이야기를 담고자 하였다. 한국의 전통적 이미지, 역대 대통령의 초상, 2014년 세월호의 안타까운 이야기들 외에 많은 이야기를 표현해 왔고 현재도 작업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번 전시는 지금까지 해 오던 작업 스타일과 2015년 그룹전에서 발표한 'Happy tree(행복나무)'라는 색채 드로잉을 접목한 작업으로, CD를 포함 하거나 포함하지 않고 작업을 하여 기존의 작업형태와 달리 새로운 공간을 표현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이동수 화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미술선생님의 칭찬 한마디에 신나서 미술을 재미있어 했다."라며 그때부터 쪽 미술을 한거나 마찬가지로 말한다.

오랜 세월 학교 강의와 전업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수 화가는 "지역작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무엇보다 단원미술관의 건립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많은 작가들의 활발한 작업을 통한 전시로 시민과 문화적으로 소통하는 자리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동수 작가는 "이번 전시 주제이기도 한 'Happy tree'는 즐겁고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림들을 해보고 싶어 작업을 시도했다. 화려한 터치감을 볼 수 있을 것이며, 행복나무와 CD와 결합된 작품도 볼 수 있다. CD라는 시대적 기록의 의미와 얹지만 많은 스페이스를 갖는 상징성도 생각하면서 작품을 감상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문의 : 단원미술관(031-481-05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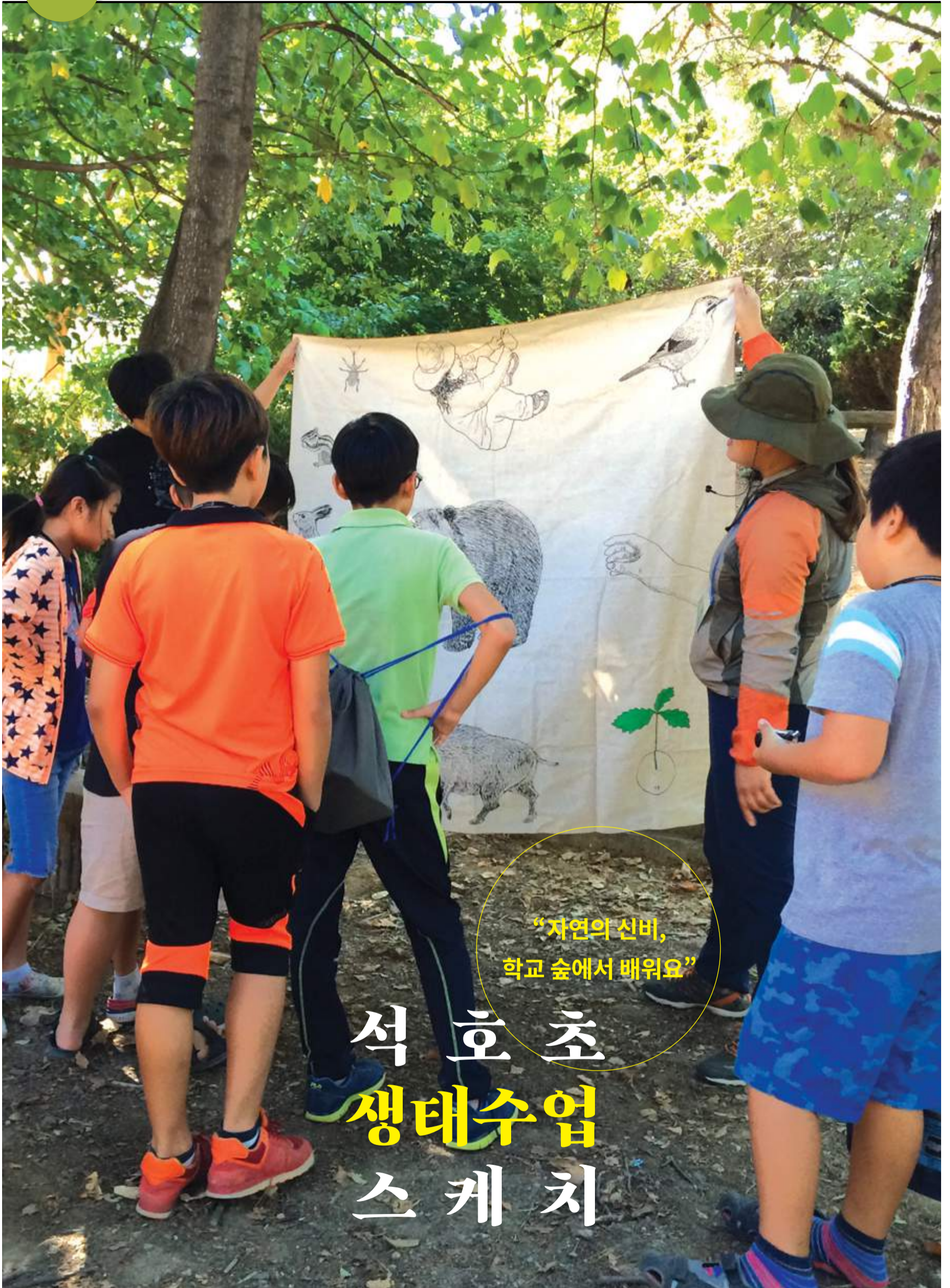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이동수, 상징 - 공간성



이동수, Happy tree



“자연의 신비,
학교 숲에서 배워요”

석호초 생태수업 스케치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교과서를 찾고 싶다면, 교실 밖을 나와야 한다.

작년에 이어 2년째 학교 숲에서 생태수업을 진행하는 석호초등학교를 찾았다.

일 년에 두 번, 전 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생태수업은 풀뿌리환경교육센터 생태안내자들의 강의로 학교 안에서 이뤄진다.

각 반을 두 조로 나눠 15명 이내 소규모로 이뤄진 수업은 자연을 관찰하고 노는 체험식 교육으로 진행됐다.

석호초등학교는 생태수업을 하기에 환경적으로 풍족한 요건을 가진 곳이었다.

역사가 깊다보니 학교 곳곳에서 다양한 나무와 꽃, 식물들을 발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오름숲도 학교와 연결되어 있어 훌륭한 교육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5학년 학생들의 생태수업을 옆에서 지켜봤다. 교실 밖으로 나오니 아이들 표정에 생기가 돌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 루페(확대경) 하나씩을 나눠주니, 호기심에 가득차서 주변 자연물을 가깝게 들여다본다.

손지연 생태교사가 거미에 대해서 배운다고 말하자 적극적인 아이들은 풀숲 밑에 있는 거미줄을 찾기 시작했다.

손 교사가 무당거미를 찾아 보여주자 아이들이 신기한지 가까이 모여들었다.

불규칙그물, 깔때기그물 등 거미의 종류만큼 거미줄 모양도 다양했고, 거미줄 없이 살아가는 거미도 많았다.

거미줄은 강철보다 5배가 강해서 '바이오 스틸(Bio Steel)'이라는 신기능 섬유소재 개발에도 쓰인다는 설명을 들으니, 자연의 신비가 그저 놀랍게 느껴졌다.

풀숲을 관찰하다 행운처럼 새끼거미들을 지키는 어미거미의 모습도 관찰할 수 있었다. 작은 곤충들이 거미줄에 걸렸다고 생각했던 학생들은

어미거미가 자식을 지키려고 꼼짝도 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곤 작은 탄성을 질렀다.

거미가 무섭다며 벌벌 떨며 제일 뒤에서 따라오던 여자 아이들도 어느덧 거미의 눈과 입을 루페로 이리저리 관찰하고 있었다.

생태수업에서 아이들은 자연에서 신나게 노는 법도 배운다. 줄 하나만 있어도 생태와 관련된 수십 가지 놀이를 함께 즐길 수 있었다.

둥글게 손을 잡고 서 있는 상태에서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영긴 줄을 풀어가는 방법을 함께 고민했고, 나무에 실로 이어 놓은 거미줄을 빠져나오는 놀이도 했다.

아이들은 거미줄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바닥을 기거나 점프를 하면서 창의적으로 움직였고, 거미가 된 술래는 아이들을 잡기위해 부지런히 뛰어다녔다.

처음에 유치하다며 빼던 아이들도 막상 놀이를 시작하니, 바닥에 뒹굴거리며 깔깔거리기 시작했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거미줄 놀이를 할 때, 거미에게 잡힐까봐 아슬아슬하게 마음 졸이던 시간이 재미있었다.”며,

“루페를 사용해 8개나 되는 거미 눈을 찾아보고, 거미줄이 길게 나오는 모습을 본 것도 정말 신기했다.”고 했다.

지난학기부터 석호초 생태수업을 진행했던 최은영 씨는 “요즘 아이들은 밖에서 실컷 놀 일도 별로 없는데, 자연에서 같이 곤충이나 식물을 채집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서로 보여주고 배려하게 된다.”며, “학교 안에서 꾸준히 이뤄지는 생태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서로 나누고

협동하는 삶을 몸으로 체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나는 여름방학!

시원한 책 바다로 '풍덩' 빠져볼까요?

여름이다! 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방법은 무엇일까?

안산시 도서관에서는 제93회 여름독서교실을 연다. 중앙도서관은 인문학 '대화가 필요해'를, 단원구 도서관(관산·단원·대부·원고잔)은 예술 '내가 진짜 아티스트', 상록구 도서관(감골·상록·성포·일동·본오1동·부곡)은 역사 '광복절, 빛을 되찾다'라는 주제로 토론과 글쓰기, 만들기 등 다양한 독후활동을 진행한다. 여름독서교실뿐만 아니라 중앙도서관 '생각이 넓어지는 독서여행', 관산도서관 '먹보쟁이 점' 공연, 단원어린이도서관 '신나는 과학이 좋아요', 선부도서관 '사이언스 매직쇼' 공연, 대부도서관 '영화로 배우는 생태 르네상스', 본오도서관 '도서관에서 만나는 다양한 글쓰기', 부곡도서관 '더위극복 오색동화' 등 다양한 여름방학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한편, 안산시 최초의 공공도서관으로 지난 1993년 7월 30일 문을 연 관산도서관은 올해로 개관 23주년을 맞는다. 7월 30일, 안산시 도서관 23년간의 역사를 기념하는 전시 '1993 ~ 2016 안산시 도서관 23년'과 관산도서관을 모티브로 극단 동네풍경과 함께 기획한 '우리들의 도서관' 창작연극을 공연하며 시민과 함께 추억을 나누고자 한다.

[안산시 도서관 여름방학 프로그램]

도서관명	프로그램명	일시	대상	장소
중앙도서관	제93회 여름독서교실 '대화가 필요해'	8. 8 ~ 8. 12 09:00 ~ 12:00	초등고학년 30명	1층 시청각실
	생각이 넓어지는 독서여행	8. 16 ~ 8. 19 09:30 ~ 11:30	초등저학년 20명	지하 동아리 2실
관산도서관	제93회 여름독서교실 '내가 진짜 아티스트'	8. 8 ~ 8. 12 09:00 ~ 12:00	초등고학년 25명	지하강당
	문화가 있는 날 '먹보쟁이 점' 공연	7. 27, 16:00	유아 및 초등저학년 50명	지하강당
	2016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도서관, 과학을 읽다!' 2차	7. 28 09:00 ~ 19:00	관내 중학생 40명	국립중앙과학관 카이스트
단원어린이도서관	제93회 여름독서교실 '내가 진짜 아티스트'	8. 8 ~ 8. 12 09:00 ~ 12:00	초등고학년 25명	3층 배움터
	신나는 과학이 좋아요	7. 26 ~ 7. 29 13:00 ~ 15:50	초등 1~3학년 20명 초등 4~6학년 20명 유아 6~7세 20명	3층 배움터
	영어동화친구 I love story	8. 2 ~ 8. 5 13:00 ~ 15:40	초등 1~2학년 15명 초등 3~4학년 15명 유아 6~7세 15명	3층 배움터
	스토리 쿡 미니머핀, 가지보트	8. 16 ~ 8. 17 13:00 ~ 16:00	초등 1~6학년 15명 유아 6~7세 10명	3층 배움터
	주말 도서관 책놀이	8. 20 13:00 ~ 16:00	유아 6~7세 및 부모 10팀 초등 1~6학년 15명	3층 배움터
선부도서관	사이언스 매직쇼 공연	8. 17, 16:00	안산시민 80명	1층 문화교실
원고잔도서관	제93회 여름독서교실 '내가 진짜 아티스트'	8. 8 ~ 8. 12 09:00 ~ 12:00	초등고학년 25명	문화교실
대부도서관	제93회 여름독서교실 '내가 진짜 아티스트'	8. 9 ~ 8. 12 13:30 ~ 16:30	초등고학년 25명	문화교실
	다양한 동화 스토리텔링	7. 26 ~ 7. 29 10:00 ~ 12:00	유아 5~7세 20명	문화교실
	영화로 배우는 생태 르네상스	7. 26 ~ 7. 29 14:00 ~ 16:00	중학 1~2학년 20명	문화교실
감골도서관	제93회 여름독서교실 '광복절, 빛을 되찾다'	8. 16 ~ 8. 19 14:00 ~ 16:30	초등 1~4학년 25명	시청각실
성포도서관	제93회 여름독서교실 '광복절이야기'	8. 9 ~ 8. 19 12:00 ~ 14:00	초등 1~3학년 20명 초등 4~6학년 20명	2층 문화교실
상록어린이도서관	제93회 여름독서교실 '광복절, 빛을 되찾다'	8. 16 ~ 8. 19 09:30 ~ 12:00	초등 3~5학년 25명	2층 문화교실
부곡도서관	더위극복 오색동화	8. 16 ~ 8. 19 09:30 ~ 15:30	초등 1~2학년 15명	문화교실
	제93회 여름독서교실 '광복절, 빛을 되찾다'	8. 9 ~ 8. 19 14:00 ~ 15:30	초등 3~4학년 15명	문화교실
일동도서관	제93회 여름독서교실 '우리는 광복원정대!'	8. 9 ~ 8. 19 10:00 ~ 12:20	초등 3~6학년 25명	2층 문화교실
본오도서관	도서관에서 만나는 다양한글쓰기	8. 9 ~ 8. 19 15:30 ~ 17:00	초등 1~2학년 15명	문화교실
	제93회 여름독서교실 '광복절, 빛을 되찾다'	8. 9 ~ 8. 19 09:30 ~ 12:00	초등 3~6학년 20명	문화교실

책 읽는 안산 / 7월 두 번째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더위를 이겨내는 열정



어린이를 위한 자신감

저자 이혜진 / 출판사 위즈덤하우스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만드는 최고의 믿음은 자신감이다'
지금 나의 자신감 상태 알아보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알아보기!
자신의 강점을 알고 자신감으로 키워보기!
자신감을 획득하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해주기!



워런 버핏, 소년들에게 꿈을 말하다

저자 윤태익 / 출판사 랜덤하우스

워런 버핏의 빛나는 리더십을 위한 경험과 지혜를 모두 내것으로 만들 수 있는 단 한권의 책. 삶의 세세한 여정과 성공비결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소개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체크리스트와 연대기를 함께 곁들였다. 워런 버핏의 긍정과 열정을 통해 리더십을 키울 수 있다.



잡스처럼 꿈꾸고 게이츠처럼 이뤄라

저자 이창훈 / 출판사 머니플러스

빌 게이츠는 직원들에게 회사의 자긍심을 심어주어 실적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해준다. 특히 미래를 보는 감각이 뛰어났고 세계초일류 기업을 만든 과정을 펼쳐보인다. 잡스와 게이츠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아내는 탁월한 면모까지 갖추며 창조적 자본주의의 선두주자가 되고 있다. 두 인물의 에피소드를 비교하며 나열한 흥미롭고 그속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다. 특히,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그들의 엄청난 추진력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책이다.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했던 명휘원, 시대를 앞서갔죠”

명휘원장 알렉산다 수녀님을 만나다



가까이 있던 명휘원에 이런 이야기들이 숨어있을 줄 몰랐다. 단순히 장애인 사회복지기관 중 하나라고 생각했던 명휘원은 1967년에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비 이방자 여사가 장애인들의 자립교육을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그래서 이곳에는 영친왕과 이방자 여사의 흔적들을 볼 수 있는 명휘기념관도 있었다.

☎ 문의 : 명휘원(031-406-1134~6)
송보림 명예기자 _ treehelp@naver.com

명휘원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명휘원의 명휘(明暉)란 이름은 영친왕의 호에서 따왔다. 고종의 일곱째 아들 영친왕은 11살 때 일본으로 강제 유학 가서 일본의 황족이었던 나시모토 마사코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녀가 이방자 여사다. 1963년 병환 중이던 영친왕과 함께 한국으로 귀국한 이방자 여사는 67년 영친왕 환국기념사업으로 명휘원을 설립하고, 71년 종로에서 인가를 받는다. 그 뒤 광명으로 이전한 명휘원을 성모 수도회가 운영했고, 1990년에는 안산시 사동으로 부지를 이전했다. 이방자 여사는 장애인들을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자활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식이 있었다. 사실 60~70년대는 장애인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지도 않았던 시절이었는데,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많이 앞서간 거다.

명휘원이 특별한 이유

현재 사회복지법인 명휘원 산하에 거주시설 명휘원, 특수학교 명혜학교, 근로사업장 해동일터, 명휘체육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다. 다른 장애인 거주시설들과 달리 명휘원의 특별한 점은 학교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것. 거주시설과 학교가 완전히 다른 건물로 분

리돼 있다. 명혜학교는 중1부터 고3 과정까지 운영되고, 고3 이후에는 전공과를 2년 더 할 수 있다. 1년에 한 번씩 반을 옮겨서 세차, 제빵, 재봉, 조립작업 등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해동일터에는 현재 40명 정도의 장애인들이 재봉 일을 하는데, 이곳에서 만든 작업복이 대덕전자 등 여러 계열사에 납품된다. 2005년에는 전국장애인생활시설 최우수시설에 선정됐다.

명휘원이 준 영향

가끔 TV에서 장애인 인권 관련 시위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희학교 출신들이 80%이상 되는 거 같아요. 졸업생들이 명휘원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명휘원이 추구하는 건 교육을 통해 이분들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 독립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2007년도까지는 수녀님들의 도움으로 많은 분들이 자립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변해 지적장애인들을 독립시켜 보내는 게 자꾸 줄어들어서 안타깝죠. 사실 가까운 동네 분들도 명휘원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원봉사도 신청받고, 명휘기념관 해설도 직접 해드리니,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세요.

‘위탁보호위원회’ 들어보셨나요?

수원지방법원 위탁보호위원으로 활동하는 정숙자 씨를 만나다

요즘 소년 비행이 늘어나고 범죄의 정도가 심각해져서 사회의 큰 걱정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소년 범죄의 경우 아직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소년 보호재판을 하고 있다. 소년 보호재판은 처벌이 아닌 환경을 개선해주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죄의 경중(輕重)에 따라 처분의(처분 1호~10호) 정도가 달라지는데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1호 처분)을 받은 소년은 위탁보호 위원에게 맡겨진다. 위탁보호위원회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이 올바른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수원지방법원 위탁보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숙자 씨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위탁보호위원회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경미한 비행을 한 소년에 대하여 선도 및 재 비행 방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원지법에는 39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 안산에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년 범죄는

사회문제가 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있지만 반면에 어른들의 무관심과 방만이 소년범죄를 부추기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걱정해 봅니다. 예전에는 엉덩이 몇 번 맞았을 일에도 내 자식 아닌 관계로 신고로 이어지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며 작은 일에도 법으로 해결하려는 어른들의 이기심은 아닐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탁자로 선정된 아이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가정환경이 열악하였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어야할 1차적 사회인 가정이 울타리가 되지 못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가 없거나 가정적으로 열악한 보호소년은 취업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로써 자기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질 줄 아는 소년으로 자라게 하여 올바른 사회로의 복귀를 이끌어 줘야 합니다. 보호위원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닌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숙자 씨는 보호위원으로 몇 해를 보냈지만 늘 가슴



한 구석이 허전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아마도 최선을 다했음에도 결과가 좋지 못한 청소년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인 것 같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라고 한다. 나라의 기둥이 되어야할 청소년의 발걸음이 가볍도록 지켜주어야 하는 것이 어른들의 몫이라 생각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김 선 명예기자 _ itsumo9011@naver.com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_ hanmarus@naver.com

“블루베리 따고 잼도 만들었어요”

농업기술센터, 선부동 안산블루베리농장서 농촌체험활동 열어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끼고 즐거운 체험까지 할 수 있는 7월의 농촌체험 프로그램이 열렸다.

안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7월 13일과 15일 선부동에 위치한 ‘안산블루베리농장’에서 어린 자녀를 동반한 안산시민 60여 명이 직접 블루베리를 따고 잼까지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세계 10대 슈퍼 푸드 중 하나인 블루베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저열량, 저지방 다이어트에 안성맞춤이다. 블루베리의 보라색 껍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있어 세포 노화를 막아준다고 알려져 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차로 농장에 도착해 농장주 안정현(61세) 씨가 들려주는 블루베리의 특징과 효능, 재배와 수확 방법까지 간단한 설명을 듣고 블루베리 나무들에게로 갔다. 수확의 손길을 기다린 나무들은 당도 13% 정도로 신맛보다는 단맛이 강한 조생품종 ‘노스랜드’ 블루베리다. 블루베리는 진딧물 등 해충이 꼬이지 않기 때문에 이곳 농장에서는 약을 치지 않고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다. 그래서 블루베리를 따서 그 자리에서 바로 먹어볼 수 있었다. 블루베리를 다 따 후에는 실습장으로 돌아와 잼을 만들었다. 블루베리 500g을 바닥이 두꺼운 냄비에 담아 잘 저어 으깨가며 한소끔 끓인 후 설탕 350g을 넣고 일정시간 쪄이면 잼이 완성된다. 이때 레몬즙을 조금 넣어주면 잼에 감칠맛이 더해진다. 간단하게 잼이 만들어졌지만 안정현 농장주는 이 레시피가 나오기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번의 실습이 선행됐다고 알려졌다. 식지 않은 잼을 준비된 빵에 발라 그 자리에서 먹어보는 맛은 꿀맛이다. 어머니의 신청으로 프로그램에 참가한 최지나(중앙초5) 어린이는 “블루베리도 직접

따보고, 잼도 만들어서 참 좋아요. 학교 오전 수업만 받고 왔는데 현장학습이 훨씬 재미있어요.”라고 말했다. 7월 농촌체험에서는 블루베리 체험뿐만 아니라 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생산자가 직접 안산시민에게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방문해 지역 생산 농산물에 대해 알아보고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기회도 함께 가졌다. 농업기술센터 이준영 도시농업계장은 “도시민은 농업을 이해하고 농업인은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주변을 둘러보면 멀리 가지 않고도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으니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져보시라.”고 했다.

농촌체험 활동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다양한 작물에 대해 배우고 자연환경과 생명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농촌지역 활성화에 한 몫을 한다.

9월에는 대부도 포도수확체험이 4회에 걸쳐 마련되어 있다. 8월에 농업기술센터 및 시 홈페이지에 참여자를 모집한다. 체험활동은 만 7세 이상 안산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안산시 농업기술센터(031-481-2567) 백미란 명예기자 _whity0218@naver.com

416을 온 몸으로 겪어낸 10대들의 목소리를 듣다

세월호 생존학생과 형제자매 이야기, ‘다시 봄이 올 거예요’

세월호에서 살아 돌아왔던 생존학생들과 어린나이에 가족을 잃었던 형제자매들은 지난 2년 동안 어떤 시간들을 통과해왔을까. ‘다시 봄이 올 거예요’는 ‘금요일엔 돌아오렴’을 썼던 416세월호참사 작가 기록단이 펴낸 두 번째 육성기록집이다. 11명의 생존학생과 15명의 유가족 형제자매들의 속 깊은 이야기가 생생하게 담긴 이 책에는 그동안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던 10대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가족에게도 미처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오래도록 가슴 속에 간직했던 이야기들이 어렵게 풀린 실타래 끝을 따라 힘겹게 말을 잇는다. 책에는 생존학생들이 기억하는 사고 당시의 생생한 풍경과 2년간 세월호 참사를 온몸으로 겪어낸 10대들의 진심어린 심경이 담겨있다. 지금도 배와 바다, 세월호라는 글자만 봐도 숨이 막혀온다는 생존학생들은 홀로 살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생존자’라는 이름으로 받게 되는 사회의 시선을 두려워하곤 했다. 나보다 더 힘든 걸 알기에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고 껍뻑 늘

러왔던 마음, 홀로 느끼는 죄책감, 세월호 참사를 알아 온 생존학생과 형제자매들은 그런 심경을 공유하고 있었다.

세월호 작가기록단은 ‘아이들이 미안하다’고 외치던 기성세대가 왜 여전히 어린 존재들의 의견을 묵살하는지 의문을 품는데서 집필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달는 글을 통해 “어린 피해자에게도 상실을 온전히 겪어낼 시간이, 상실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지 결정할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전한다. 이 책을 덮으며 다시금 보게 되는 것은 ‘가만히 있으라’는 메시지가 참사이후의 한국사회와 교육에 여전히 뿌리 깊게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환경 속에서 어린 세대들은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보려 애썼고, 절망 속에서도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찾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부조리함을 온몸으로 받아냈던 어린 피해자들이 아직 발버둥치고 있다면, 우리도 아직 절망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책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는 최소한 함께 기억하는 사람들의 단단한 신뢰가 뭔가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씨앗임을 보여준다.

“행복을 느끼는 매순간에도 늘 슬픔이 동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슬픔과 고통도 멎치면 더 강해지지 않을까. 고통을 이겨낸 만큼 더 남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싶어요. 그럴 거예요.”(‘다시 봄이 올 거예요’ 박준혁 학생 구술 중)

송보림 명예기자 _treehelper@naver.com



건강UP! 비만DOWN!

비만개선프로그램 2기 참여자 모집

- 기 간 : 2016. 8. 1. ~ 8. 19.
- 장 소 : 상록수보건소 3층 상록수문화실
- 대 상 : 60세 이하 BMI 25이상 40명(선착순)
(※ 심장질환 등 전문적 치료 필요시 제한 될 수 있음)
- 참 가 비 : 무료
- 문 의 : 상록수보건소(☎ 481-5925)

음악과 함께하는

모유수유 건강강좌에 초대

- 일 시 : 2016. 8. 4.(목) 14:00~16:00
- 장 소 : 상록수보건소 3층 상록수문화실
- 대 상 : 모유수유에 관심있는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그 외 시민 60명
- 문 의 : 상록수보건소 모자보건실
(☎ 031-481-5975~8)

가족과 함께하는 2016년도 하반기 야간 운동교실 회원모집

- 기 간 : 2016. 7. 1. ~ 10. 31.
- 대 상 : 지역주민 누구나
- 내 용 : 에어로빅, 스트레칭, 새천년 건강 체조, 라인댄스 등
- 문 의 : 상록수보건소(☎ 481-5930)



**일본뇌염
경보발령**

모기에 물리지 않게 주의,
어린이는 예방접종 완료 당부

문 의

상록수보건소(481-5938)
단원보건소(481-3475)

상록수·단원보건소는 일본뇌염 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생후 12개월~만 12세 어린이는 예방접종 할 것을 당부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기준

구 분	접종 권장 기준
사백신 ¹⁾	Mouse Brain 유래 총 5회 접종 생후 12 ~ 23개월에 7 ~ 30일 간격으로 2회 접종, 2차 접종 6 ~ 12개월 후에 3차 접종
	Vero cell 유래 4차(만 6세), 5차(만 12세)
생백신 ²⁾	총 2회 접종 생후 12 ~ 23개월에 1차, 1차 접종 12개월 후에 2차 접종

1) 사백신(불활성화백신) :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열이나 화학 약품으로 죽이거나 활동을 둔화시켜 생산한 백신
2) 생백신(약독화 생백신) :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독성을 약화시켜 생산한 백신

**여름철 폭염 대비
건강관리 3대 수칙**

1 물을 자주 마신다.



2 시원하게 지낸다.

- 시원한 물 샤워, 목욕
- 실내 적정온도 (22~26℃) 유지



3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한다.

가장 더운 시간대 (낮12-5시) 휴식



**찾아가는 나들강좌,
배움에서 나눔으로 이어지는 평생학습의 장이 되다**

안산시 평생학습관은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제안하는 '내가 디자인하는 평생학습' 공모를 통해 찾아가는 평생학습 '나들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나들강좌는 시민이 주도적으로 교육시간, 장소, 강사 섭외 등 교육과정을 기획·운영하는 시민참여형과 지역적·계층적으로 소외된 학습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시민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공모를 했다. 평생학습관은 올해 신청한 58개 학습모임 중 37개 학습모임을 선정해 운영중이며, 2천만 원의 학습강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 경희요양병원에서는 10주 동안 흠바리스타 과정을 통해 배운 핸드드립커피를 직원과 환우들에게 나누는 일일차집이 열렸다.

달콤한 위로, 설렘 가득 시원한 핸드드립 커피, 사랑 품은 뜨거운 커피 세 종류뿐인 커피였지만 링거를 매단 팔대를 앞세우며 줄을 선 환우들과 직원들이 복도를 가득 채웠다. 요양사들도 휠체어를 밀어주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는 테이크아웃도 해주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임영란 씨(45세, 사2동)는 "바쁜 워킹맘들이 뭔가를 배운다는 게 쉽지 않던 차에 나들강좌를 신청하게 되었고, 점심도 거르면서 열심히 참여했어요. 핸드드립뿐만 아니라 다양한 커피를 맛보면서 커피찌꺼기 활용법, 공정무역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며 생각도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부서 간 갈등과 스트레스로 소원해있던 직원들끼리 함께 커피를 내리고 마시는 과정을 통해 좀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호스피스 병동의 우울한 기운이 커피향이 나면서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아 좋네요."라며 환우들에게 커피를 건넸다.

평생학습관 문영희 관장은 "배움이 나눔으로 이어지는 평생학습의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봉사하는 공동체문화로 만들어가는 것은 평생학습이 지향해야 할 점"이라며 직장 내 나눔의 문화를 반겼다.



요가, 노래교실, 공예, 토탈플라워, 연극, 독서교육, 글쓰기 등 나들강좌에는 1,258명이 참여하고 있다. 학습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상 속의 평생학습을 통해 지속적인 학습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며 자아실현의 기쁨을 맛보고 있다.

홀로
대부도
여행

대부도를 느릿느릿 걸어봅니다.
조금 삭스러워도 멋스러운 곳은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턴테이블과 LP판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한여름에 이미 시든 해바라기와 한껏 청춘을 불사르는 나리꽃의 대비도 인상적입니다.
가볍게 대부도로 떠나보세요. 홀로 대부도 여행은 소울 오디세이(Soul Odyssey)입니다.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_hanmarus@naver.com



Photos in Ansan

사진으로 보는 안산

안전
체험
교육

아~ 소화기는 이렇게 쓰는구나!
와~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체험교육은 직접 자신이 겪어보면서 몸으로 기억하는 교육효과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안산시 민방위교육장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꼭 이용해 보세요.



도시 재생과 사회적경제의 만남

영국 해크니(Hackney)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란 시장경제가 ‘이윤 극대화’에 가치를 두는 것과 달리 ‘사람과 지역사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사회적경제의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지난 5월 안산시장을 비롯하여 안산시, 시흥시, 안양시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영국 도시재생 현장연수’에 참여하였다. 연수 내용 중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도시 재생 사례 일부를 소개하고, 안산시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런던의 해크니(Hackney)는 빈곤한 이민자와 유색 인종의 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슬럼가였다. 이 지역은 지난 30~40년 동안 경제성장률은 약 40%, 임금 상승률은 약 30%였으나, 집값 상승률은 무려 200%를 넘어섰다. 해크니의 실업률은 런던시 실업률보다 높았고, 전체 임금의 7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었다. 지역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은 이전과 다를 바 없었다. 이에 해크니구(區) 당국은 커뮤니티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조직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해크니의 지역활성화 중심에는 사회적경제 조직인 해크니개발협동조합(Hackney Co-operative Developments, 이하 HCD)이 있었다. HCD는 해크니구로부터 버려진 건물을 빌려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기업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작업공간을 제공하였다. 해크니의 독특하고 창조적인 비즈니스와 맥을 같이 하는 창업자를 선정하여 입주하게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해크니구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도 하였다. 그 결과, 스타트업들이 해크니에 동지를 틀면서 자생적으로 클러스터가 형성되었고,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도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다. 해크니는 영국 전역에서 가장 창조적인 동네이자 런던 내 테크 시티(Tech-city)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HCD는 런던시와 함께 ‘공공공간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과거 우범지역이었던 달스톤 킹스랜드(Dalston Kingsland)역 인근의 질레트 스퀘어(Gillett Square)에 세계적 재즈클럽인 볼텍스(Vortex) 등의 예술가들을 입주시켰다. 여기에 수준 높은 예술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질레트 스퀘어는 해크니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였다.

현재 해크니는 또다른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해크니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자 이는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원주민들이 임대료가 저렴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일자리 창출이나 부의 창출을 넘어 지역적 부의 재분배로 미션이 변화하고 있는 셈이다.

해크니와 안산시는 빠르게 성장한, 이민자들이 거주하는 다양성이 가득한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도시재생을 바라보는 해크니구의 관점이 통합적이고 커뮤니티 중심, 로컬 비즈니스 중심이라는 점은 안산시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안산시도 좋은 마을 만들기, 희망마을 추진사업단 등을 통한 도시 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성공적인 도시 재생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사회적경제 조직,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 등 주체들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긍정적 효과 이면에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안산시도 창의적이고 다양한 공간과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기에 충분하리라 생각한다.



김선지
(재)경기테크노파크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선임연구원

스마트한 전기사용 한국전력이 함께 하겠습니다!

전기절약 캠페인

한국전력 안산지사

우리 집 전기도둑을 잡아라!

올 여름 전기도둑 제대로 잡고, 전기요금도 줄이고,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에어컨 등의 전력소모가 많은 제품 사용 시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평균 366kWh 68,010원	하계 528kWh 159,270원
-------------------------	--------------------------

여름 3시간 에어컨 사용시

사용량은 1.4배 증가!
그러나, 요금은 2.3배 증가!



- 세탁기**
 - 세탁물 모아 한꺼번에 세탁하기
 - 세탁기 잠금모드 이용하기
 - 천물은 세탁하기
- 에어컨**
 - 하루 1시간 사용시간 줄이기
 - 실내 적정온도 설정하기(26℃)
 - 일대 2주에 한번 청소하기
 - 1년에 한 번 냉매 점검하기
- TV&PC**
 - 불필요한 TV시청 줄이기
 - TV를 켤 때 셋톱박스 전원 끄기
 - 적정 볼륨으로 TV시청하기
 - 불필요한 PC사용 줄이기
 - 컴퓨터는 절전모드 설정
- 냉장고**
 - 냉장실 음식물은 60%만 채우기
 - 문 여는 시간 짧게 하기
 - 냉장고 방열관 청소하기
- 전기밥솥**
 - 보온기능 사용 자제
 - 압력밥솥 사용하기
 - 대기전력 차단하기

가전기기별 전기절약 요령 So Easy!

- 대기전력 차단하기
- PM2.5 전례미크로시간대 (2시-5시) 전기사용은 최대한 자제하기
- 에어컨은 약하게,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기
- 여름철 실내온도는 26℃ 이상으로 유지하기
- 청소기 사용전 필터 및 먼지통 청소하기
- 사용하지 않는 공간의 조명은 완전 소등하기
- 비대 온수 변화온도 OFF
- 정수기 온수는 필요할 때만 ON



도전하세요!

공모주제 알코올,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
작품형식 20컷 이상의 완결본 원고 1편
참가자격 개인 또는 팀으로 누구나 응모 가능
시상내역 수상자 총 10명 / 상금 총 310만원

대상	1명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최우수상	2명	상장 및 상금 50만원
우수상	2명	상장 및 상금 30만원
입선	5명	상장 및 상금 10만원

응모기간 2016.07.11. ~ 2016.08.31.
심사기간 2016.09.01. ~ 2016.09.16.
수상발표 2016.09.23.
시상식 2016.10. (차후 일정 변경 가능)

자세한 내용은 ansanacc.or.kr에서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031-411-8445-6
 ✉ ansanacc@hanmail.net

주최 안산시 주관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J O B

“행복을 위한 당당한 도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취업 네비게이션”

목요일에 희망 잡(job) 고(go)

취업박람회

일시 : 2016. 8. 4.(목) 14:00 ~ 16:00

장소 : 안산시청 대회의실 (민원실 2층)

주최·주관 : 안산시 / 산업단지공단경기지역본부 문의 : 안산일자리센터(☎031-481-2882)



2016년 8월 주말 영화상영

상록어린이도서관 주말 영화상영 프로그램



8/06(토) 8/13(토) 8/20(토) 8/27(토)

장 소 안산시 감골도서관(상록어린이도서관 어울림방 1층)
 시 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문 의 상록어린이도서관(☎ 481-3743), 감골도서관 홈페이지(<http://lib.iansan.net>)

단원어린이도서관 주말 영화상영 프로그램



8/06(토) 8/13(토) 8/20(토) 8/27(토)

장 소 안산시 관산도서관(단원어린이도서관 지하 강당(어울림터))
 시 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문 의 단원어린이도서관(☎ 481-3856), 관산도서관 홈페이지(<http://lib.iansan.net>)

인천발 KTX, 안산 초지역 정차 확정!

국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2018년 착공, 2021년 개통 예정

